

제5회 한국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시회 (SEK '91)

〈'91. 6. 27 ~ '91. 7. 1〉



「제5회 韓國 컴퓨터/소프트웨어전시회」가 27일 KOEX (한국종합전시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에 앞서 宋彥鍾체신부장관, 金鏞炫 과기처장관을 비롯해 白燦基 교체위간사, 李宣基 KOTRA사장, 金夏鎭 정보과학회장, 宋炳南 S/W산업협회장, 朴鐘鉉 IPAK 회장, 金相榮 전자신문사 사장이 테이프커팅을 했다.

제5회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전시회 (SEK '91)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 동안 KOEX 태평양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매년 「정보문화의 달」에 열리는 동 전시회는 개막 첫날부터 관람객이 속속 들어 성황을 이루었고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각종서적, 첨단하드웨어 등이 다양하게 출품되어 관람객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한국 소프트웨어 공모전 입상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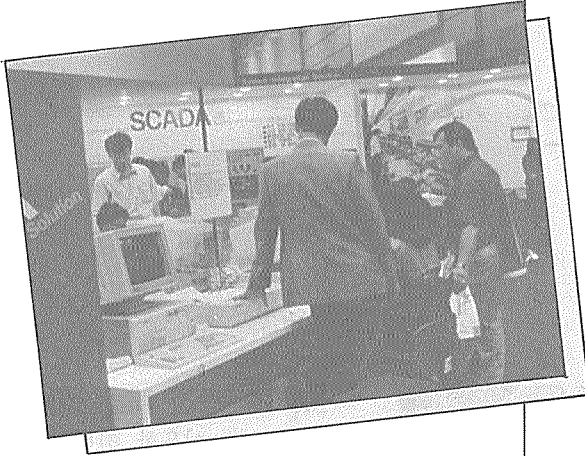
별도 전시를 마련함으로써 공모전 전시관에는 관람객의 눈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신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지난해보다도 더욱 풍성해진 이번 전시회는 전체적으로 그래픽기능이 강화되면서 멀티미디어화 경향이 두드러졌다. 금성사, 삼성전자, 현대전자 등 대기업들의 부스에서는 물론 중소기업들의 소규모 부스에서도 비디오 악기나 전자악기를 컴퓨터에 연결시킨 제품들이 관람객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JC HYUN시스템이 출품한 「사운더블랙스터」, 삼성전자의 「도레미」, 맥킨토시 엘서를 선보인 ENG사 등은 첨단 컴퓨터 음악을 실현해 보여 전시회 분위기를 한층 돋우기도 했다.

그리고 송연중 체신부장관, 김진현 과기처장관, 백찬기 국회교체위간사 등 정부고위인사가 참관, 동 전시회를 더욱 빛내기도 했다.

5일 동안의 이번 전시회는 211개 업체에 3,200여점이 출품되어 지난해에 비해 업체와 품목이 모두 대폭 증가했다. 동 전시회 기간중 계약고 500억원, 가계약액 450억원, 제안서요청





1,500여건이라는 큰 열매가 바로 업계의 발전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이렇듯 총 경연장이된 이번 전시에는 각종 선진국의 첨단제품들은 직·간접으로 국내업체들에 품질향상에도 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경연들을 통하여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이 국내외 제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일반소비자들의 S/W에 대한 S/W가 H/W의 부속물이라는 인식을 변화시켜 준 것은 물론 컴퓨터마인드 확산에도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컴퓨터/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 소프트웨어개발 촉진과 판로진작, 외국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개와 국내업체의 개발경쟁력제고, 수출업체 상호간의 정보교환에 의한 개발기술향상 등 S/W의 대중화라는 본 전시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전시회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시각적인 효과만 누리던 다른 전시회와는 달리 관람객이 제품과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해 보는 현장감 있는 전시회 형태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S/W공모전 출품 및 입상제품들이 크게 향상 되었다는 것이다. 대상을 차지한

금성소프트웨어(주)-하나그림,
금상에 (주)유니온시스템-Uni-Loop,
은상에 두산종합기술원-주문판매시스템,
오양시스템(주)-K, I, P, S,
동상에 서통산업(주)-AI·SHELL,
(주)쌍용컴퓨터-분쇄공정자동제어시스템,
(주)미래소프트웨어-스택정보관리시스템,
장려상에 (주)쌍용컴퓨터-InFormax,
한국안전시스템(주)-PC-BSS,
(주)유공-Pro-star 등은
질적인면에서도 월등히 나아진 제품들이다.

세번째는 전시회와는 별도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기술 세미나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름든 참가업체들간 정보교환은 물론 기술혁신, S/W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시회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다가오는 2,000년대 정보산업의 방향키로서 우리나라 S/W산업의 정확한 좌표를 찾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